

위례신도시 10블럭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2013. 07. 0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경 과

- 청 원 자 : 강남구 자곡동 440-101 김명묵외 1,751명
- 소개의원 : 최조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접수일자 : 2013. 5. 2 (46번)
- 회부일자 : 2013. 5. 7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07.05 상정 · 채택)

2. 청원요지

-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시행하는 위례 신도시내 A1-8블럭과 A1-11블럭 사이에 계획 중인 초등학교(초6)는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특별공급 등으로 인해 학생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A1-10 블럭의 주택건설이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A1-10 블럭의 초등학생까지 초6에 다니게 되어 학급당 학생수는 더 증가하여 당초 LH와 교육청이 추정한 학생수보다 훨씬 많은 학생수가 유발되어 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A1-8 블럭 학생들이 초4에 다닐 경우 통학로 위험이 상존하므로, 본 청원은 과밀학급 해소와 통학 안전을 위해 A1-10 블럭에 초등학교 신설부지를 추가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임.

3.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최조웅 의원)

- 위례신도시내 A1-8블럭과 A1-11블럭 사이에 총 47학급에 1,645명의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초등학교(초6)가 계획 중으로, 예상되는 학급당 학생 수는 34명이며, 이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26.7명임을 감안해 볼 때 과도한 학생 수임.
- 입주자 세대구성 현황 및 강동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한 A1-8블럭과 A1-11블럭내 초6 학생수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출산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A1-10 블럭의 주택이 건설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자녀들이 초6에 다니게 될 것인 바, 초6은 초과밀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A1-10 블럭에 초등학교 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본 청원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청원을 소개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청원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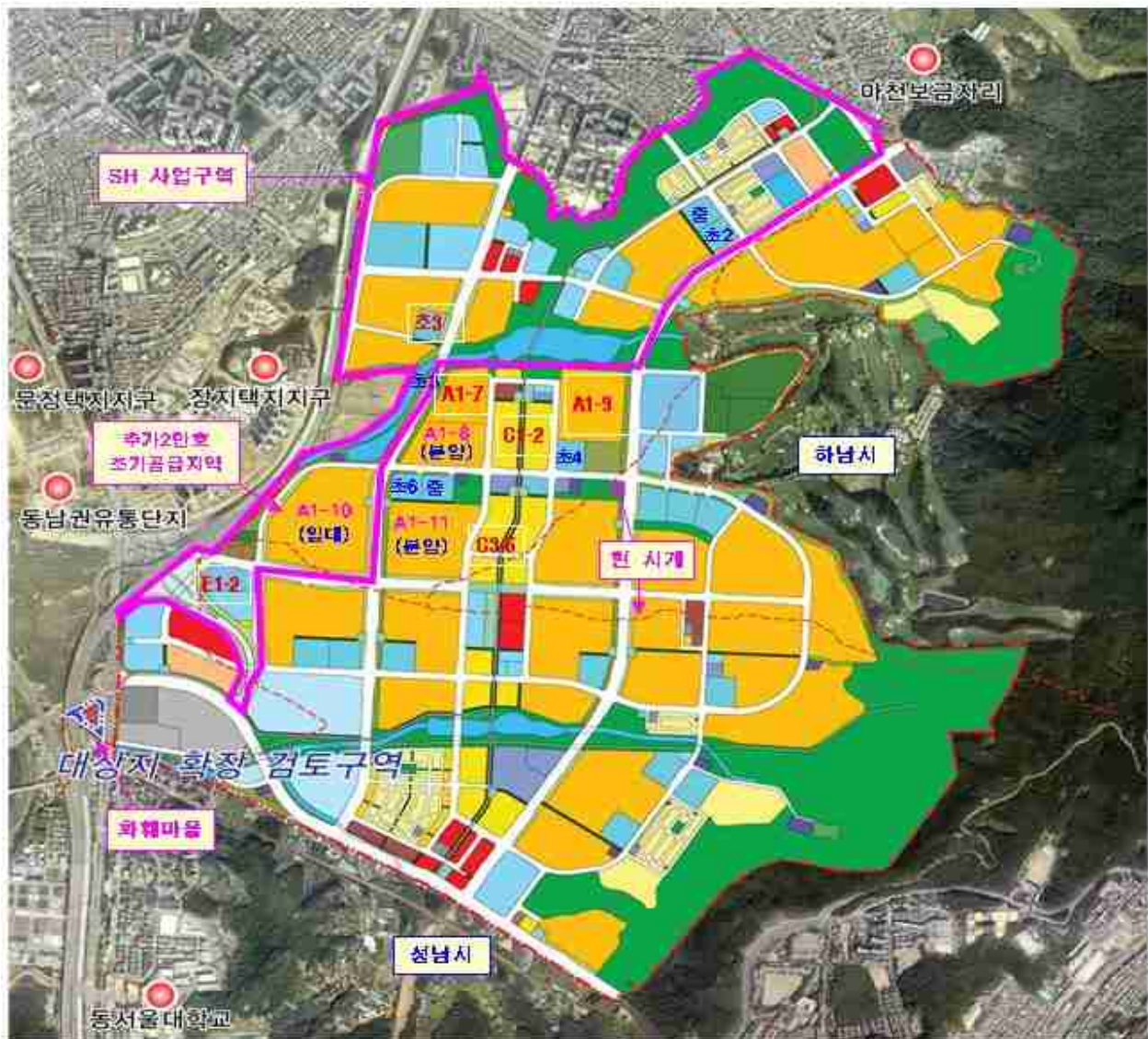
-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시행하는 위례 신도시내 A1-10 블럭에 추가로 초등학교 신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임.¹⁾ 그 이유는
 - A1-8 블럭과 A1-11 블럭, A1-10 블럭의 주택공급방식이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생수가 당초 LH와 교육청이 추정한 학생수보다 많아져 초6에 과밀학급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임.
 - A1-8블럭 학생들이 초4로 배정될 경우 도로횡단에 따라 통학로에 위험이

1) 위례신도시 서울시 송파구 관할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총 4개교(초등학교 2,3,4,6)임.

상존하고 있음.2)

- ※ 청원인들은 초등학교 4나 초등학교 6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A1-8, A1-11 블록 입주 예정자들임. A1-8과 11블록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이미 분양 완료되어, 금년 12월 입주예정임.
- ※ 해당지역 교육청인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청원의 내용과 동일하게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A1-10 블록에 초등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참고 : 토지이용계획도>



- 2) A1-8구역 입주예정자들은 초4로 통학구역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인접한 초6를 두고 초4로 가기 위해 4차선대로 2회 횡단과 트램(노면전차) 노선횡단에 따른 통학로 위험이 있다고 해당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청원지역의 블록별 입주시기 및 학교배정 계획

- 블록별 주택 입주시기가 2013년부터 2018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학교의 설립시기도 상이하여 학생들의 학교배정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이루어질 예정임.
- 학교 배정계획에 따르면,
 - 초6³⁾은 A1-10⁴⁾, A1-11 블록의 학생들이, 초4에는 A1-7, A1-8, A1-9, C1-1~6 블록의 학생들이 배정될 계획이며, 개교 예정시기는 각각 2016년 3월과 2014년 3월임.
 - 그러나 2013년 12월에 입주할 예정인 A1-8블록(세대수 1,140, 학생수 496명)은 초4 개교시기보다 입주시기가 2년, A1-7은 1년 정도 더 빨라 초4에 배정받지 못하고, 2014년 3월 개교예정인 초6에 배정되어, 약 1~2년 후 초4로 전학을 가야 함.

학교명	개교예정	예정통학구역	비고
초6(장이초)	2014. 3	A10,11구역	- 8구역 학생은 초4 개교전 '14, '15년도 초6에서 수용 - 7구역 학생은 초4 개교전 '15년도 초6에서 수용
초4(장원초)	2016. 3	A7,8,9, C1~6구역	

구분	A1-7 (분양)	A1-8 (분양)	A1-9 (군임대)	C1~1-6 (주상복합)	A1-10 (임대)	A1-11 (분양)
입주예정	'15.1	'13.12	'16 이후	'16 이후	'16.8	'13.12
세대수	565	1,140	1,500	2,090	2,200	1,810
학생수	138	496	565	297	548	941
	초4 (1,496명) : '16.3월 개교				초6 (1,489명): '14.3월 개교	
진행현황	공사중 (대우)	공사중 (LH)	건축설계 (LH)	토사매각중 (LH)	건축설계 (SH)	공사중 (LH)

3) 초6은 장이초등학교는, 초4는 장원초등학교임.

4) A1-10은 장기전세주택단지로서, 2016년 8월, A1-11은 2013년 12월 입주예정임.



□ 학교부지 관련 추진경과

- 2007. 04. 23 : 위례신도시 학교용지 관련 사전협의 (LH→강동교육지원청)
- 2009. 12. 11 : 최초 교육환경평가 심의 완료 (초4개교 및 학구결정)
- 2010. 10. 19 : 개발계획변영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재심의 결과 통보
(서울시 교육청→LH)
- 2011. 12월 : 서울지역 시범단지 모집공고 및 입주자 결정
(A1-8,11블럭 2,949세대)
- 2012. 04. 18 : 학교용지 추가확보 요청 (강동교육지원청 → 국토부,서울시,SH,LH)

- 2012. 05. 15 : LH 학교위치 변경 및 학구 조정 대안 제시 (LH→강동교육지원청)
- 2012. 06. 11 : LH공사 조정안 수용불가 회신(강동교육지원청→SH, LH)
- 2012. 10. 11 : 10BL 세대수 감소안 제시(2,654세대 → 2,200세대) 및 이에 대한 의견회신 요청 및 촉구
- 2012.12.31 : 초4 통학로 안전확보방안 등 협조 회신(LH→강동교육지원청)
- 2013. 03. 08 : 학교추가신설 부지 요청 (강동교육지원청 → 국토부,서울시,SH,LH)
- 2013. 03.20 : 학교 추가신설 부지 제공 어려움 회신 (SH공사→강동교육지원청)
- 2013. 4.4, 4.10 : 서울시 학교지원과 주재 초교신설 관련 회의 개최
(서울시 학교지원과, 임대주택과, 강동교육지원청, LH공사, SH공사)
- 2013. 05. 09 : 학교용지 제공 요청 (강동교육지원청 → 국토부,서울시,SH,LH)
- 2013.05.14 : 학교용지 제공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서울시→강동교육지원청)

□ 학교추가 신설에 대한 쟁점사항

- 쟁점사항은 학급과밀, 전학 및 통학로 안전문제, 임대주택단지 전용 학교 설립 타당성 등으로 이에 대한 서울시, SH공사(이상 “서울시 등”)와 강동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급과밀 우려에 대해

- 강동교육지원청
 - 2010년 9월 교육환경평가 당시의 입주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5) 초4와 초6 통학구역내 주택공급 방식이 다자녀와 신혼부부6) 등

5) 2010년 9월 개발계획변경(세대수 등)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재심의 당시에는 주택공급 방식이 다자녀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특별공급방식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통보받지 못해 일반 분양을 전제로 학생 유발률을 산정하여 예측한 결과 10블럭에 추가 학교 부지 확보 요청을 하지 않음.

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특별공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추정치보다 학생수가 2배 가까이 증가(당초 738명→1,437명)⁷⁾하여 초6과 초4의 과밀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며,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서로 달라 당초 학교 배정계획에 따라 A1-7구역과 A1-8블럭 학생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초4에 배정받지 못하고 초6으로 배정받을 경우 초6의 과밀학급은 더 심해질 것임.

초4가 개교한다 하더라도, 초6에 다니던 A1-7블럭과 A1-8블럭의 입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 전학을 시킬 수 없고, 이들 주민이 현재 초4에 배정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전학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A1-8블럭의 주민들은 오히려 초6으로 학교 배정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평균 학급당 인원은 25.7명이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2017년까지 23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나, 위례신도시 초6의 경우 급당 인원은 2017년 42.3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⁸⁾

○ 서울시 등

- 교과부 초등학교 적정 학급수 기준은 36~48학급에 학급당 인원은 35명이며, 주택공급방식의 변경에 따른 학생수 증가는 이미 세대수를 축소(E1-2: 1,180→0, A1-10: 2,654→2,200 총1,642세대 감) 조정하는 것으로 강동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완료되었음.

6)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신혼부부는 결혼 후 5년내이면서 한 자녀 이상인 부부를 말함.

7) 현재 당초 일반분양을 전제로 세대당 0.25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급방식 변경으로 A1-8 블럭은 세대당 최대 0.45명, A1-11 블럭은 0.52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강동교육지원청)

8) 8블럭 학생을 초6에서 수용할 경우의 예상치임.

블럭별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다름에 따른 학구 재배정으로 일시적인 과밀현상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이는 1~2년 후에 초4가 개교하면 해소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전학을 하지 않는다 해도 2년(2017, 2018년) 동안만 2~3학급 기준의 과밀이 발생하며, A1-8 블럭 재학생의 26%만 초4로 전학한다 하더라도 과밀 학급은 발생하지 않음.

또한 A1-10블럭은 20년간 장기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단지이며, 거주자의 순환율이 5~10%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공동화의 우려가 있음.

A1-10 블럭에 초등학교 신설부지를 확보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이 약 400 세대 감소한 1,800 세대로 감소하여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세대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임.

▶ 통학로 안전 문제

○ 강동교육지원청

- 초4의 통학거리에 트램(노면전차) 노선과 4차선 대로 2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A1-8블럭의 입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초6을 두고 통학로가 먼 초4로 자녀들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민원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 등

- 통학로 안전대책은 LH공사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안전시설 보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당초 학교 위치와 배정은 교육환경 평가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음.

▶ 10단지 임대주택 전용 학교 설립

- 서울시 등은 A1-10 블록내 초등학교 신설시 임대단지 전용학교가 되어 분양주택과 사회적 분리를 초래하는 등 사회통합정책에 역행하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 강동교육지원청은 A1-10 블록내 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수준을 갖춘 자들이 입주하는 장기전세주택 전용으로, 일반적인 임대주택과는 다르다는 견해임.

□ 학교의 조기 개교

- 서울시 등은 초등학교 개교 시기의 차이로 과밀이 발생한다면, 2016년 개교예정인 초4의 개교시기를 앞당길 경우 과밀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초4의 조기 개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 투자심의에 시일이 걸린다면 초4의 용지 대금 납부전에 교육청에 토지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며,
- 강동교육지원청은 2015년 상반기에 초4의 개교는 어려우나 하반기 개교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7단지 주변 공사 중으로 통학에 따른 안전문제, 8단지 초4 개교 후 전학기피, 통학로상 도로 및 철로 횡단 문제 등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다는 입장임.

□ 종합

- 이상 청원인들의 청원과 강동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울시 등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항은 학교의 과밀여부, 통학안전문제, 전학문제, 그리고 임대전용의 학교 신설의 타당성 여부 등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들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
- 강동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추가 신설할 경우, 개교시기 차이에 따른 학생 분리 문제 해소와 초6의 과밀문제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소에 따른 양질의 교육환경의 확보, A1-8 구역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 초4와 신설학교는 물론 초6에도 병설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임에 반해,
- 서울시 등의 경우, 위례신도시는 금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학교의 신설·위치 변경, 학구 조정시 또 다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며, 교과부 초등학교 적정 학급당 학생수 기준에 따라도 과밀학급이 되지 않으며,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은 보완 시설 등을 통해 해결가능하다는 입장임.

또한, 민원인(8단지 주민)들이 외견상 학교과밀, 통학로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단지(임대주택)와 같은 학교 배정을 꺼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미 관계기관 회의⁹⁾를 통해 학교 신설과 조기개교, 학구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계기관간

9) 2013년 4월 민원해소 방안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서울시, 교육청, SH공사, LH공사)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학교신설안, 초4의 조기 개교, 학구조정에 대해 토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함.

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임.

- 결론적으로, 본 청원은 학교과밀 여부,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한 대안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측면과 학구 및 개교시기 조정 등의 기술적 측면, 임대주택 전용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전용 임대주택단지 건설의 타당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의견서 : 별첨

의견서

□ 청원명

- 위례신도시 10블럭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

□ 채택 의견

-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시행하는 위례 신도시내 A1-8 블럭과 A1-11 블럭, A1-10 블럭의 주택공급방식이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특별공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초6의 과밀학급이 우려되고, A1-8블럭 거주 학생들이 개교시기 차이에 따라 초4로 배정될 경우 도로횡단에 따라 통학로에 위험이 상존하므로, A1-10 블럭내 초등학교를 추가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임.
- 과밀학급의 기준, 임대주택 단지 전용의 학교신설의 타당성 여부, 임대주택 공급물량 조정 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라는 국정과제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A1-10 블럭내 초등학교를 추가 신설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함.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46	접수년월일	2013. 5. 2.
청 원 인	김명묵 외 1,751명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440-101)		
소개의원	최조웅 의원 (민주당, 송파구 제6선거구)		
건 명	위례신도시 10블럭에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		
소 관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요 지》

- 서울시(SH공사)에서 개발중인 위례신도시 송파구 A1-10블럭 주변 지역은 '14.3월 A1-8블럭과 A1-11블럭 사이에 47학급 총1,645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초등학교가 설립될 계획중으로 예상되는 학급당 학생수는 34명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인원수 26.7명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학생수이므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A1-10블럭에 초등학교 부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